

학생 주도 질문·생각·탐구 교실 지향

전북교육청, 초등 수업혁신 운영 계획 설명회... 개념기반 탐구수업 지원 자료 소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전주평화의전당 유향검침소에서 도내 초등학교 수업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초등 수업 혁신 운영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2026학년도 초등 수업 혁신의 주요 정책인 △개념기반 탐구 수업혁신 △자발적 수업 공개 및 나눔 활성화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개념기반 탐구수업'은 학교에서의 배움이 학생의 삶으로 연계되기 위한 깊이 있는 학습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 스스로 주도적으로 질문하고 생각하며 탐구하는 교실을 지향한다.

이에 개념기반 탐구수업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이 강사로 나서 △개념기반 탐구수업은 무엇일까?(강인미 한솔초 수석교사) △탐구 질문은 어떻게 만들까?(윤부성 남원대산초 교사) △

탐구를 이끄는 사고전략은 어떻게 활용할까?(오수지 남원도봉초 교사)를 주제로 소통하며, 각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2025년 초등 수업혁신지원단의 연구 성과를 모아 제작한 '생각하는 학생을 위한 개념기반 탐구수업 탐(구)하는 교실! 탐(나)는 수업! II' 교재와 전북 초등 수업-학생평가 포털'에 탑재된 개념기반 탐구수업 녹화

영상도 함께 소개해 개념기반 탐구수업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초등 주요 교과별로 도내 초등(수석)교사 8명이 직접 참여해 제작한 개념기반 탐구수업 수업 영상은 실제 수업 장면과 교사, 학생 인터뷰 등이 담겼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학생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질문하며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업이 2026년 초등 수업 혁신의 방향"이라며 "우리 교육청은 선생님들의 수업 연구와 실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현장을 방문 중인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8일(현지 시각) 설상 종목 경기가 열리는 코르티나 담페초를 찾아 최두진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알프스 설원으로 간 교육감 권한대행 전북 출신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격려

유정기 대행, 동계올림픽 출전 최두진 선수 선전 당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현장을 방문 중인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8일(현지 시각) 설상 종목 경기가 열리는 코르티나 담페초를 찾아 최두진 선수를 격려했다.

최두진 선수는 전북 무주군에서 태어나 무주 실천초등학교와 실천중학교, 실천고등학교를 졸업한 바이애슬론 국가대표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의 학생선수 육성 시스템 속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며 성장한 최두진 선수는 비단기 종목의 실용과 최박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기량을 갈고닦아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날 훈련장에서 최 선수를 만난 유정기 권한대행은 선수의 손을 꼭 잡으며 선전을 당부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무주의 눈밭을 달리던 소년이 이제 알프스의 설원을 누비며 전북의 모든 학생 선수들에게 '노력하면 된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어주고 있다"며 "은 전북 교육가족이 하나 되어 응원할 테니 후회 없는 레이스를 펼쳐달라"고 말했다.

최두진 선수는 "학창 시절 전북교육청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며 "고향 전북과 모교의 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답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동계종목 선진국의 선수 훈련 시스템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해 향후 도내 학교 운동부의 훈련 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연구 성과 교육혁신으로 '확장'

지난해 602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인 반도체공동연구소 공모에 선정되며 차세대 반도체 연구 거점으로 도약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연구 인프라 구축 성과를 교육 현장으로 확장하며 실질적 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섰다.

반도체공동연구소설립추진단은 올해 기업 연계형 2개 교과목을 신설하고 반도체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 대규모 연구 인프라를 교육 체계에 선제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연구, 교육, 산업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신설된 교과목은 △차세대 반도체 공정(Next-Generation Semiconductor Process) △반도체 화학소재(Semiconductor Chemical

Materials)로, 모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해당 교과목에는 SK하이닉스 임원 출신 신규 교원과 지역 내 반도체 화학소재 기업인 동우하이켄 임원 등이 참여해 산업 현장 실무요와 기술 흐름을 교육에 직접 반영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단순한 이론 수업을 넘어 반도체 관련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졸업 이후 곧바로 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기업 친화형 인재' 양성이 목표다.

특히 반도체 소재·케미컬·센서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지역 산업 구

연소 공모 선정 이후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 지역 대학·연구기관 등 우회인력·OCI·한솔케미칼·KCC·광전자·오디텍·PIL Semi 등 도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현재 반도체물성연구센터(SPRC) 인근 부지에 총 3,800㎡ 규모로 조성된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조성 중이다. 연구소는 400여 평의 클린룸과 실험·교육 공간을 갖춘 첨단 복합 연구 인프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한 연구 공간을 넘어, 실증 테스트베드와 전문 인력 양성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초·중·고교 사회정서교육 중점학교 공모

전북교육청, 30개 학교 내의 선정... 23일까지 신청접수

학교 자율시간·자유학기제 시간 등 활용 17차시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사회정서교육 중점학교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사회정서교육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장을 목표로 자기이해, 대인관계, 공동체 역량 등을 강화하는 학교 기반 교육이다.

특히, 중점학교에서는 교과 및 창의

학교 자율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활용해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 운영한다.

또, 사회정서교육 동아리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교육과정 연계 공개수업을 진행한다.

사회정서교육 중점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3일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총 30개 내외를 선정해 학교 규모와 계획서 내용에 따라 교당 5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한다. 최종 선정 학교는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의 책무"라며 "사회정서교육을 통해 학생의 긍정적인 성장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올 338개교에 학교안전지킴이 465명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이 학교폭력 등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38개교에 총 465명의 학교안전지킴이를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각 학교장이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한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의 책무"라며 "사회정서교육을 통해 학생의 긍정적인 성장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공무원 사칭 '대남·선입금 요구' 사기 주의"

허위 공문·가짜 명함까지 동원... 의심될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전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전주교육지원청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물품 대납을 요구하거나, 대금을 사전에 통장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기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업체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사기 수법은 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지역 업체나 개인에게 접근한 뒤, 공사 또는 물품 계약과 관련해 대금 구제를 요청하거나 특정 판매업체를 소개하면서 대남 또는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특히,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

해 긴급한 상황을 가장하고, 문자메시지로 허위 공문서(계약서 등)나 가짜 명함 이미지를 전송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로 확인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청 및 관내 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물품과 관련한 대남이나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모든 계약과 물품 구매는 관계 법령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되며, 개인 계좌로의 입금 요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주교육지원청은 시민과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청 또는 학교를 사칭해 공사·물품 대납이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응하지 말 것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전주교육지원청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피해가 의심되거나 사기 시도가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서(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채선영 교육장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는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인 확인과 신고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국립군산대 산학협력단 입주기업협의회, 장학금 수여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지조성사업단은 9일 입주기업 협의회가 국립군산대 재학생의 학업 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해 6명에게 3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산학협력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조성한 것으로, 국립군산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산학 협력력을 기반으로 대학 교육과 인재 육성에 기여한다는 점에

서 이번 장학금 수여는 큰 의미를 지닌다.

군산대 산학협력단지조성사업단장인 박정호는 "이번 장학금 수여는 산학협력력이 학생 지원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입주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과 대학 발전에 기여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섭 입주기업 협의회장은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는 대학과 함께 성장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립군산대 산학협력단지조성사업단은 이번 장학금 수여를 계기로, 입주기업과 대학 간 협력을 학생 교육과 인재 양성 분야까지 확대하고, 산학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교육 지원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산=김민호 기자

전북대 RISE사업단, 중국 항저우서 글로벌 산학협력 교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전북대 RISE사업단이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국 항저우를 방문해 전북대학교 RISE사업단과 저장대학 간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대학과 혁신 기업이 집적된 항저우 지역의 산학협력 협력 모델을 직접 확인하고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RISE사업단에서는 저장대학 관계자와의 만나 교육·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공동 프로그램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또한 항저우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을 방문해 AI 피지컬 AI(Physical AI) 기반 산업 현장을 집중적으로 탐방했다.

한편, 전북대 RISE사업단은 이번 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AI·로봇·스마트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제 공동 프로그램과 현장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비수도권 최초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 연구기관 '재선정'

전북대학교 부설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소장 허봉현 행정학과 교수, 이하 공지연)가 비수도권 최초의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재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전국 5개 연구기관을 선정했다. 해당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조사·연구, 매뉴얼 작성·보급,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갈등행위분석 및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지연은 1차 지정기간(2023~2025년) 동안 갈등관리 연구·교육·컨설팅 분야에서 지역 거점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해 왔으며, 2차 지정기간(2026~2028년)에는 현장 중심의 갈등관리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지연은 2022년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 3년간 표준화된 갈등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주력해 왔다. 전국 62개 공공기관, 3,20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하며 공공갈등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산시켜 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공기업 등 지역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실천형 교육'을 지향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 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성과를 축적해 왔다.

재선정된 올해부터는 기존의 연구·교육·컨설팅 업무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중점 추진 과제인 속의공론화 운영기구 사업 지원, 갈등전문가 풀(Pool) 관리, 갈등관리 실무 교육교과 개발, 갈등관리 워크숍 기획·운영 등에서도 중추와 지역을 잇는 유기적 연계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허봉현 소장은 "우리 연구소는 비수도권 최초의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서 1차 지정기간 동안 축적한 연구·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2차 지정기간에는 국무조정실의 중점 추진업무까지 포괄하는 정책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지역 거점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계획"이라며 "질정에 적용 가능한 갈등관리 모델과 인재 양성 체계 등 고도화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합의 형성과 사회질은 구축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